

양정철이 엑스맨?...소병철 살리려다 김원이 죽일 판

순천 찾아 의대 유치 협약...목포 김원이 '악재' 박지원 "무능과 배신 책임져야"...윤소하 '삭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여야 3명의 후보가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전남 목포 선거의 '뇌관'을 건드렸다.

4·15 총선에서 전남지역 의과대학 유지를 두고 목포와 순천 지역 후보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를 이끌고 있는 양 원장이 선거전 막판 순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양정철 원장은 4·15 총선 마지막 휴일인 12일 소병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 지원을 위해 순천을 찾았다.

양 원장은 이날 소 후보 선거사무소에 정책협약식을 열고 △순천 선거구 원상 회복 및 부군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 협력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및 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 확대 협력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약속했다.

그는 "제가 민주연구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협약을 한 것은 힘있는 집권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인 소병철 후보와 함께하고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강력한 의미로 해석해도 된다"라고 애정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소 후보는 민주당이 어려운 순천을 지켜달라고 '삼고초려', '십고초려' 해 어렵게 모신 분"이라며 "그는 총선 후 검찰개혁과 공수처법 등 여러가지 개혁법들을 시행해 나가야 하는 데, 맨 앞에 계셔야 할 분"이라고 강조했다.

양 원장이 이날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약속하면서 목포 선거구인 양정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낙연 민주

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순천을 찾아 의대 설립이 포함된 전남 동남권 후보 공동정책 이행협약식을 개최해, 목포대 의대를 추진해 온 야당 후보들의 극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목포에 출마한 김원이 민주당 후보도 "동부권 의대유치를 중앙당과 협의해 발표했다는 것은 민주당 동부권 후보들의 공약일 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제 후보 공보물에도 목포대 의대 유치 공약이 들어갈 것"이라고 발끈했다.

급기야 민주당 전남도당은 "민주당과 전남도당은 전남 동부권에 의대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바 없다"며 "동부권 의대설립 유치는 동부권 후보 4인의 정책협약에 포함된 내용일 뿐, 동부권과 서부권 후보들은 각자 의대유치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목포 선거구에서는 의대 유치를 놓고 후보간 공방은 끊이지 않았고 이번 선거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양 원장이 지역에 내려와 논란이 계속되던 '의대 유치'와 관련 순천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목포에 출마한 김원이 후보에게는 폭탄을 떠안긴 셈이 됐다.

양 원장의 발언이 목포에서 박지원 민생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김원이 민주당 후보에게 선거 막판 표심이반을 불러일으킬 최대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윤소하 정의당 후보는 13일 목포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목포대 의대를 선거에 팔아먹은 민주당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김원이 후보는 그동안 목포시민을 우롱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후보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중앙당이 김원이 후보를 버렸다. 순천에 의대를 몰아 준 것이다"면서 "김원이 후보는 자신의 무능과 배신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에 가

용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양 원장이 지역에 내려와 논란이 계속되던 '의대 유치'와 관련 순천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목포에 출마한 김원이 후보에게는 폭탄을 떠안긴 셈이 됐다.

양 원장의 발언이 목포에서 박지원 민생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김원이 민주당 후보에게 선거 막판 표심이반을 불러일으킬 최대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윤소하 정의당 후보는 13일 목포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목포대 의대를 선거에 팔아먹은 민주당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김원이 후보는 그동안 목포시민을 우롱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후보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중앙당이 김원이 후보를 버렸다. 순천에 의대를 몰아 준 것이다"면서 "김원이 후보는 자신의 무능과 배신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에 가



제21대 총선 전남 목포 선거구에 출마한 윤소하 정의당 후보가 13일 오전 목포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 민주당을 규탄하며 김원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12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순천을 방문, 민주당 소병철 후보와 순천대 의대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맺었다.

세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친문 핵심인 양 원장이 당내에서 박원순 서

울시장 계보인 김원이 후보를 내친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윤호 기자

민생당·무소속, 광주서 뒤집기 카드는



전정배 민생당 광주 서구을 후보가 지난 10일 광주 서구 염주동 염주네거리에서 이틀째 '3000배 유세'에 나선 가운데 한 시민이 수건을 들고 나와 짊어주고 있다. 올해 65세인 천 후보의 3000배 유세를 글썽이며 지켜보던 이 시민은 "건강도 생각하셔야죠"라며 수건 2장을 들고나왔다.

4·15 총선이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는 더불어민주당의 석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광주는 8개 선거구 중 7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상대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민주당 후보와 김경진

무소속 후보가 대결하는 광주 북갑도 오차범위 내지만 조 후보가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광주에서 비(非)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있을까.

지역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민주당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압승을 전망하고 있다.

변수는 현역 중진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민생당의 뒤집기 전략이다.

지역 중진은 민생당 소속인 6선 천정배(서구을), 4선 박주선(동남을)·김동철(광산갑), 3선 장병완(동남갑) 후보 등이다.

이들은 '중진역할론' '호남대통령 만들기' 등을 이번 선거의 프레임으로 내세우며 지역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지역 중진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하반기 안정적 국정운영과 호남발전을 위해서는 '조선'이 아닌 다선의 중진 의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교하고 있다.

이개호 "정치는 정직해야... '민주당 팔이' 안돼"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선거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후보가 광주전남지역 일부 민생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들이 펼치는 '민주당 마케팅'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개호 후보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를 지키고, 이낙연과 함께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며 "그 중심은 역시 광주·전남이라는 광주·전남이 민주당의 심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 "그런데 요즘 느닷없는 사람들의 '문재인 팔이', '이낙연 팔이'가 한창이다"며 "문재인, 이낙연, 민주당은 일심동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주당에 침을 뱉고, 문재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며 "그러나 정치는 정직해야 한다. 민주당이 외롭고 힘들고 서러울 때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사람만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게 바로 합부로 '민주당 팔이'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개호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총선에 나선 민생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 뒤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공약하고 나선 것을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광주 동남을에 출마한 무소속 김성환 후보를 비롯해 북구갑의 무소속 김경진 후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무소속 정인화 후보, 전남 여수갑의 무소속 이용주 후보는 당선 뒤 민주당

입당을 공언하고 있다.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에 우호적인 지역 여론을 뒤집기 위한 승부수를 꺼낸 듯 모양새로 읽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전략에 대해 지난 8일 광주를 찾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우리당을 탈당해서 다른 당에 간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다.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소속 후보들이 복당하겠다는 요청을 많이 했는데 한번도 안시켰다"며 "선거때만 되면 이당 저당 옮겨다니는 잘못된 정치관행을 바로잡고자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을 하겠다고 하니 한번 더 기회를 줘도 될 것 같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윤호 기자

광주 북구갑 "文 정부에 힘" vs "일 잘하는 사람" 치열

문재인 정부 성공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후보 찍어줘야제." "무소속 후보가 현역에 있을 때 일 잘했잖아. 민주당 입당도 한단다."

오는 15일 진행되는 21대 총선 본 투표를 앞두고 광주에서는 북구갑 선거구가 재선을 노리는 무소속의 현역 후보와 여당인 민주

당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곳은 최근까지 여론조사에서 광주의 다른 선거구와는 다르게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현역 후보가 10%내외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만난 이모씨(53·여)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지 이 나라가 더 좋아지지 않겠어"라며 "그동안 말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오치동에서 만난 조모씨(28)는 "현역의원이 국정감사에서도 잘했고 그동안 일도 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여기에 민주당으로 복

당을 하겠다고 하니 한번 더 기회를 줘도 될 것 같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